



중국 국경절 연휴(1~7일)가 시작된 1일 중국 관광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들이 한국관광공사 직원들과 함께 환영 행사를 열고 광주·전남 홍보 안내책자와 주요 관광지 할인 쿠폰책자를 나눠주고 있다. /무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숙박시설 정비 없이 '백약이 무효'

광주 '머무는 관광지' 되려면

광주시가 민선 6기 주요 시책으로 내놓은 '차이나 프렌들리'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KTX 호남선 개통·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숙박시설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숙박 등 머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와 관광버스 등에서 내뿜는 매연 등 광주의 자연환경만 해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시설 부족 현상은 KTX호남선 개통에 따른 위기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쇼핑·관광분야의 수도권 역류현상을 촉진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숙박업소 현황 및 실태**=광주지역 숙박업소 총 835개로 1만7500여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단체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관광호텔 급은 18개소 1234실이다. 또한 모텔급 707개소 중 시설이 우수해 광주시에서 크린호텔로 지정된 곳은 13개소 540실이다. 나머지 모텔 694개소와 여인숙급 110개소 등은 1만5000실을 보유하고 있는 데 관광객 유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낙후돼 있다.

결국 호텔급과 함께 그나마 시설이 괜찮은 모텔까지 포함해도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은 31개소 1774실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광주지역 호텔을 대표한다는 라마다프라자는 규모나 시설, 서비스 수준이 서울이나 제주도 등의 동급호텔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주차장도 객실수의 절반인 67면에 불과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국제 행사시 VIP급을 모실 숙박시설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광주에서 대형 행사가 열리더라도 VIP들은 당일 또는 겨우 1박 정도만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경제유발효과 높은 학술대회·의료학회 유치 어려워**=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찾아오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광주 최초의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인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 2005년 9월 개관한 이후 수년 동안 호텔 부족으로 국제행사나 국내 대형 행사를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요즘에는 행사시기가 다른 국내외 행사와 겹칠 경우는 대형 행사의 유치가 불가능하다.

숙박시설 부족으로 단 2~3일 만에 수십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학술 대회 등이 광주 개최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다양한 행사 중에서도 학술대회나 의료 분야 학회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광주의 위상 제고는 물론 행사 개최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가 일반 행사의 두세 배에 달한다.

실제 지난 4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진행된 대한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3000여명의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단 이틀이었지만 경제유발 효과는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KTX 호남선 개통·문화전당 개관 효과도 못 누릴판**=현 숙박시설 상황으로는 KTX호남선 개통과 문화전당 개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차이나 프렌들리'도 결국 숙박시설 부족으로 노력 대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쓸만한 숙박업소 31곳 1770실 불과

학술대회·국제행사 유치 걸림돌

KTX 개통·문화전당 개관 효과 난망

시, 크린업소 지정 외엔 대책 없어

호텔 유치 외 현실적 대안 찾아야

우선 KTX 호남선이 내년 3월 개통하면 광주~서울이 1시간33분이면 갈 수 있게 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화전당이 개관하더라도 양질의 숙박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박 1일 일정의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문화전당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광주시에 숙박 인프라 확충을 요구해 왔으며, 문화전당 활성화 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매년 부족한 숙박시설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숙박시설 대책 손 놓은 광주시**=광주시의 숙박시설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정답이다. 폐쇄형 중저가 모텔을 업그레이드해 '크린호텔'로 전환하고, 그나마 시설이 괜찮은 모텔 72개소를 크린숙박업소를 지정해 지원하는 게 전부다.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도 지정 표지판 제작 수역, 시 홈페이지 공표, 우수숙박업소 안내 책자내 소개, 각종 행사시 우선 이용 안내 뿐이다.

시는 또 민선 5기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급호텔 유치 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업체측이 광주시에 특급호텔을 짓는 조건으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책은 없나**=지역 관광업계에서는 광주시가 특급 호텔 유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도심 내 시설이 열악한 숙박업소들과 지역내 화가나 미디어아트 작가 등을 연계해 아트호텔이나 뷰티크 호텔 등으로 전환하는, 가칭 지역 예술인 숙박문과 프로젝트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도시 광주만의 숙박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 예로 광주 지하철 한 칸을 예술공간으로 만든 광주폴리 프로젝트를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접목해 보는 것도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숙박업이 살아날 경우 모든 숙박업소가 상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잠재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관광업계의 의견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모텔이나 여관업자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가 국내 대도시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혹형 호텔인 콘도와 유스호텔 등을 없다는 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광주는 대도시의 장점인 다양한 쇼핑여건과 길거리, 먹거리 등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전남까지도 인근에 두고 있다"면서 "숙박시설만 제대로 갖춘다면 매력적인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도세자의 애간장



(85) '비밀의 문'



전(傳) 사도세자 이선의 '개 그림'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다루었던 사극의 소재 가운데 하나가 '사도세자의 죽음'일 것이다. 평생 동안 경종 독살설과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영조, 그의 친아들을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인 사극 자체가 다분히 극적이다. 정조가 즉위한 후 사도세자 죽음의 책임을 물어 외가를 폐가시키면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눈물 흘리게끔 했던 것도 드라마적이다.

얼마 전 시작한 드라마 '비밀의 문'은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1735~1762)의 죽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드라마는 사도세자의 초상화가었던 화원 신홍복의 의문사로 출발한다.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사도세자는 예술가 기질이 강해 경전 읽기보다 시 짓고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말을 타고 유람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도화서 화원을 "벗으로 여겨 아꼈던" 사도세자는 그와 더불어 그림도 자주 그렸을 것이다.

드라마에서도 살짝 비취지만 사도세자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림은 뜻밖에도 세마리의 개를 그린 '개 그림'이다. 큰 개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작은 개 두 마리, 작은 개는 좋아라 꼬리치며 뛰어오지만 큰 개는 관심도 없다. 현군의 자질을 지녔음에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세자의 심정을 담은 듯 다시 보아도 애잔한 느낌이다.

공저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가운데 '궁궐의 개, 사도세자의 개'라는 글에서 정병설교수(서울대 국문과)는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싶은 사도세자와 부자가 아니라 군신 관계로만 대하여 늘 엄격했던 영조를 그린듯하다"고 해석한다. 정교수는 사도세자가 '개 그림'을 그렸을 무렵 동물화가로 이름 높은 김두량과 변상벽의 비슷한 개 그림이 여럿 그려졌다는 사실도 소개하면서 화원들이 그린 개 그림들이 사도세자의 애견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덧붙여 흥미롭다.

그림은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결국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몸속에만 머물기 버거운 영혼'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2014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www.cjr7080.com

추억! 그 열한번째 이야기

추억과 비움

추억의 충장축제

The 11th Chungjang Recollection Festival

2014.10.8(수)~10.12(일)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주최 광주광역시 동구 주관 추억의 7080 충장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한국관광공사 협찬 광주은행 오비맥주 롯데 보태양조 대흥사